

오피니언

월/요/광/장

한 희 원



영국의 시인 T.S.엘리엇이 황무지에서 울조린 잔인한 달 4월이 가고 영랑이 노래한 찬란한 슬픔의 오월이 다가오고 있다. 찬란한 아름다움과 잔인한 슬픔의 양면을 응시하며 다르면서도 같은 세계를 보여주는 시인의 언어는 나른한 봄날 우리의 정신을 일깨워 준다. 찬란한 속에 숨어있는 날카로운 아픔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렇듯 시인의 몫이다.

이제 곧 봄의 절정 오월이 온다. 산에는 벗꽃 천지이고 곳곳에 새로운 탄성의 소리로 가득하다. 문화 예술계도 봄은 특별한 계절이다. 마치 오랫동안 어머니의 자궁 속에 웅크리고 있던 태어난 아이처럼 겨우내 지독한 고통과 고독의 방에서 창조한 작품을 내보이는 그런 시기이다.

그렇지만, 2011년 올해는 묘하다. 예술의 거리를 비롯해 광주의 많은 갤러리에 서 작가들의 개인전 소식을 듣기가 힘들다. 종종 기획전 소식은 들려 오지만 그래도 화가에게 개인전은 창작의 꽃이다. 삶

이 힘들어도 순수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작가들이 이렇게 좋은 봄날에 왜 웅크리고만 있는 것일까.

예술가들이 잠든 도시, 음악이 없고 문학이 떠나고 선과 색의 아름다움이 사라

진 세상, 이러한 감성이 없이 물질만 추구하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예술은 신인 인간에게 내려준 선물이라고 한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창조한 작품을 보고 감동하면 엔도르핀의 50배가 넘는 물질이 생성돼 자신도 모르게 위안과 생의 활력을 느낀다고 한다. 빈센트 반 고흐가 고통 속에서 그린 그림이, 베토벤의 고난을 넘는 환희의 노크소리가, 윤희동의 한편의 '서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게 위안과 희망을 주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신은 예술가들에게 천재성과 창작의 고통이라는 양면의 칼날을 주었지만 예술가들이 고통 속에서 창조한 작품들은 영원히 인류의 것이 되어 끝없이 살아 감동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는 예술가들에게 얼마간의 빛이 있는 것이다.

몇 해전에 '포엠티스트'라는 공연이 광주에서 정기적으로 열렸었다. 한보리라는 싱어송라이터가 뛰어난 이 시대의 시인과 함께 한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공연이었

예술가라는 존재

다. 시를 음악으로 만들고, 그 시인을 초대하여 깊은 대화를 나누는 참 귀찮은 콘서트였다.

그동안 초대된 시인만 하더라도 신경림·정희성·김용택·정호승·안도현 등 한국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공연도 자금 조달과 관객 동원이 문제였고 우리는 이 시대의 뛰어난 시인들을 정기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다. 지금 열리고 있는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도 이 지역의 많은 아티스트들

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좋은 공연이지만 많은 관객들이 찾아줄까 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졸인다.

봄이 왔으나 예향 광주의 예술인들은 아직 겨울 눈보라 속을 걷고 있는 것 같다. 전시회를 열어도 오픈 날 외에는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고 공연장에는 관객을 채우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다. 신명이 남아 좋은 작품이 나오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거창하고 많은 자본이 투자된 문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만큼 우리의 삶과 함께는 풀뿌리 예술도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진정한 예술의 도시가 되는 것이다.

예술이 곧 사람이다. 사람을 키우고 소중하게 생각할 때 진정한 변화가 오게 될 것이다. 독재와 탄압으로 작가정신을 억압하는 것도 절망이지만 관심이 없이 버려두는 것도 또 다른 절망이다.

삶이 힘든 시기지만 그래도 아름다움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예술은 절망을 먹고 사는 꽃이다. 여러분이 그 꽃을 가까이 받아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화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칼럼



강성두

일반 시민들이 언론매체를 통해 필자와 같은 변호사들에게 바라는 글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변호사들이 사익에 치우치지 말고, 힘없는 서민들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람들에 대하여 변호사의 한 명으로서 항상 부끄러움과 빛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 갑니다.

얼마 전 변호를 했던 사건이 생각납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자신이 살던 아버지 명의의 집에 방화를 하였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기소된 상태였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었지만 과연 피

진정한 의미의 확정 판결

고인의 행위가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느냐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집행유예판결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 사안이었지만, 피고인이 이미 동일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처지였습니다.

최하한 형이 3년이기 때문에 감경사유를 감안하여도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최소 3년을 복역해야만 했습니다. 일단은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없었다는 쉽지 않은 변론을 하면서 현주건조물이 아니라는 변론도 함께하였습니다.

다행히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화재감시 공무원의 진술에 큰 도움을 입어 재판부는 물론, 검사도 동의하여 타인 소유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로 첫 번째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역시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처지에 있었습

니다. 선고를 앞둔 시점에 피고인을 접견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처음부터 살았던 아파트이고, 아버지가 증여한 것이나 신용상문제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였으니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 자기 소유의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필자 역시 법리와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이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변론요지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재판부에서 위 주장을 속의할 필요가 있

기고

4월27일 희망의 정치를 만들어 보자



박삼서

산과 들이 울긋불긋 온통 꽃 지다. 일찍 핀 꽃들은 어느새 꽃잎이 휘날려 떨어지고 활기찬 새싹이 돋아 푸름을 더해간다. 바야흐로 생동의 계절, 희망의 계절이다. 그러나 희망의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속 한 면에는 뾰지 모를 개립칙함이 팽물고 있음을 느낀다. 그렇다. 우리 전남지역에서는 한참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이번 선거만큼은 정말 공정하고 깨끗하게 잘 치러야겠다는 책임감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4월 27일은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전남지역에서는 순천에서 국회의원선거, 화순에서는 정장당당하계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를 걸어주기를 바란다. 우리 선

전다. 이중 화순군수선거와 목포시의원선거는 선거법위반으로 인한 재선거로서 작년에 치렀던 선거일로부터 1년도 채 안되어 다시 치르는 선거이다.

특히, 화순군수선거의 경우는 2002년도 이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3번 있었는 데 선거 때마다 불법이 자행되어 연거푸 3번이나 재선거를 치르게 된 것이다. 지역 주민들로서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일인가. 화순군수의 재선거 사례는 우리 선거사에 있어서 치욕적인 오점으로 길이 길이 남을 만도 하다. 게다가 부부군수, 형제군수라니.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신조어 아닌가? 아무튼, 해외토포감이 될 만하다.

이제 선거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 우리 전남 3개 시·군에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모든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당부 드리고자 한다.

첫째, 후보자는 정당당당하게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를 걸어주기를 바란다. 우리 선

관위에서는 후보자들에게 이번 선거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로 치러지도록 권장해 왔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다.

일부 후보자는 정책대결보다는 상대후보자를 비방하거나 근거도 없는 헛소문으로 선거 분위기를 깨뜨리는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당선자가 선거법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었는데, 그 위반행위의 대부분은 불법 금품제공과 허위사실공표행위가 주를 이룬다.

둘째, 유권자의 깨어있는 의식이 필요하다.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유권자는 그동안 어떻게 투표해 왔는가? 우리는 정치인을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비난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그러면서 선거 때마다 소지역주의와 집단 이해관계에 얽혀 아무런 비판의 없이 투표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투표' 행태를 보여 왔다. 그렇게 뽑아놓고 지역발전 위해 열

심히 일해 달라니 어불성설 아닌가.

후보자의 정권과 정책 그리고 공약은 무엇인지,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써서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등을 일일이 따져보고 누가 책임자인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유권자가 명심해야 할 것은 투표에 꼭 참여하여 유권자의 힘을 보여 주자는 것이다. 흔히들 "짜를 사람도 없는데 누구를 찍나" 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뽑을 만한 후보자가 없어서 기권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기권을 하면 할수록 부정부패하고 무능한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게 된다. 비록 내 맘에 속 드는 후보자가 없더라도 출마한 후보자 중 그대도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다.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잘 치러져야 민주주의의 꽃은 아름다울 것이고, 그 열매 또한 탐스럽게 열릴 수 있다. 4월 27일! 우리 모두가 투표에 참여하여 재·보궐선거지역이라는 불명예를 말끔히 씻어내고 살기 좋은 고장, 희망의 정착을 만들어 보자.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본 폭언과 협박, 회문 등이 익숙해지는 것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도덕 불감, 양심 불감, 범죄 불감으로 이어져 심각한 인성과 괴를 부를 것이다. 장난을 뛰어넘은 문자 폭

력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정서파괴를 막으려면 가정에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이순애·광주시 북구 충효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 설

재보궐 선거 불법·혼탁 유권자가 막아야

4·27 재보궐 선거가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또다시 극심한 과열과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선거는 말 그대로 지역 일꾼을 뽑는 지역선거지만 여야가 '대선 전초전' 등의 의미를 부여하며 총력전을 펴면서 선거가 종반으로 갈수록

선거가 종반으로 갈수록 갈수록 지역 일꾼을 뽑는 지역선거지만 여야가 '대선 전초전' 등의 의미를 부여하며 총력전을 펴면서 선거가 종반으로 갈수록 갈수록 선거가 종반으로 갈수록 갈수록

선거가 종반으로 갈수록 갈수록 갈수록 선거가 종반으로 갈수록 갈수록 선거가 종반으로 갈수록 갈수록

선거가 종반으로 갈수록 갈수록 갈수록 선거가 종반으로 갈수록 갈수록 선거가 종반으로 갈수록 갈수록

후보자 간 고소·고발과 비방전으로 선거를 혼탁으로 몰아가고 있다. 불법부정선거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4·27 재보궐선거가 과열·혼탁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매일수룩 유권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과열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으면서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정치권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의 성실한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이 지방선거의 근본 취지이기 때문이다. 잘못 뽑아놓고 재·보궐선거를 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라는 것을 보고 있지 않은가.

이번 선거만큼은 유권자가 합리적 판단에 의해 한 표를 행사하는 공명선거 정신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 후보의 정책과 인물 필모를 꼼꼼히 살펴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는 결국 유권자들의 몫이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깨어 있는 유권자의 의식이 절실하다.

활개치는 '대포차' 억울한 피해자 양산한다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포차가 범람을 피해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이들 대포차는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고, 탈세의 한 방법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광주지방경찰청에 적발된 서울지역 조직폭력배 김모씨는 광주시 광산구 흑석동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매매상사를 차려놓고 사용 연한이 지난 영업용 택시를 일반 승용차로 변경한 뒤 대포차로 유통시켰다고 한다. 김씨가 판매한 대포차만 271대에 이르고 구매할 운전자가 260명에 달한다니 '움직이는 폭탄'이 도심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셈이다.

대포차는 소유권이 자동차매매상사로 돼 있어 업소가 폐업을 할 경우 사실상 무적차량이 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추적이 불가능해진다. 이들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이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보험 미가입, 불법 행위 등으로 합의가 어렵고 뺑소니를 칠 개연성이 높아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용'으로 이용되다 보니 자동차세·법정금·과태료 등이 적용되지 않아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김씨에게 대포 차량을 구입한 운전자들의 각종 교통 위반 과태료가 무려 8000만 원에 이르렀다. 과태료나 세금 청구 등에 경찰력은 물론 행정적 낭비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차량 거래 장부가 없어 대포차 구입자의 신원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술한 자동차 관리법도 대포차 유통이 근절되지 않는 주요 요인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대포차를 소유한 개인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대포차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경찰력을 동원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 정부 역시 대포차 구입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지도록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연예인들은 누구나 스타가 되기를 열망한다. 배우나 탤런트, 가수를 꿈꾸는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대중의 갈채를 한 몸에 받고, 부와 명성, 인기를 한꺼번에 거머쥘 수 있기 때문이다. 총무로 여의도를 거머쥘 수 있는 연예인 지망생들이 넘쳐나고 '슈퍼스타K' 같은 대국민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는 이유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스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닌 듯하다. 가수 겸 작곡가 서태지(39)와 배우 이자(33)가 한때 부부였다는 사실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계기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은·오피 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록그룹 시나위의 베이스리스트였던 서씨는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을 결성,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한국어 랩음악과 댄스음악의 새 지평을 연 1990년대 대중문화의 아이콘이었다. 이씨는 드라마 '태왕사신기'와 '이태원' 등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데다

최근 배우 정우성씨와 공개 연애를 즐겨 주목을 받았다. 화제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모두 정상급 스타인 만큼 네티즌과 언론의 관심은 폭발적이다.

반면, 서씨와 이씨는 그동안 사생활에 대해 철저히 비밀에 부치는 '신비주의' 전략을 고수한 탓에 개인 정보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일부에서 '대중기 디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는 이유도 별반 다르지 않다.'

신상털기



스타를 좋아하는 이들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음악이나 연기력 등 그들이 지닌 재능이 출발점일 것이다. 범죄나 도덕적 비난을 받아야 할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비판하고 들춰내려는 것보다 개개인의 사생활과 기호를 존중해주는 것이 진정한 팬의 자세가 아닐까.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업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내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